

#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현대차지부 3월 31일 총투표 실시 확정! 기아차지부장 4·24 파업 동참 의지 밝혀!

## 4·24 총파업에 힘있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선제 총파업'을 만장일치 결의하고, 4월 24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서울대병원 등 노조들도 잇따라 4·24 파업 동참 결의를 밝혔다.

특히 기아차지부 김종석 지부장이 3월 12일 임시 대의원소집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복무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차지부도 3월 31일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 통상임금-공무원연금 개악에 속도 내는 박근혜

박근혜는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계급 전체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중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통상임금 억제다.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타협을 압박하며,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우리 노후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아차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요구를 지지하며 연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

최근 노사정위에선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마음이 급한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통상임금 등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려고 현대차지부를 방문하려 했지만, 현대차지부는 옹기 이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퍼붓는 공세는 정몽구 같은 자본을 도와주려는 악랄한 시도다.

이미 현대 자본은 3월 31일까지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8/8 시행을 앞두고 노동강도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4·24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자

이 속에서 현대차 대의원·조합원들은 지난주 한상균 위원장 현장 순회에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대차의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출투와 중식 선전전 등을 힘차게 벌이며, 총파업 조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화성공장을 중심으로 '현장 조직' 대부분과 활동가들이 4·24 총파업 실천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실천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이 호소하는 실천단에 동참하자. 4·24 총파업을 힘있게 벌여, 15년 임투에서



쟁점이 될 통상임금, 8/8 시행,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디딤돌로 만들자. 민주노총의 핵심 대인인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선다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모두가 서로의 요구를 지지하며 한날 한시 파업에 나서자!

###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대법원이 2월 26일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이미 법원은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의장조립뿐 아니라, 엔진서브, PDI, 물류 등을 포함해서 생산직 모두를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을 실질화 하기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에서도 지부와 지회, 분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파견 확대는 박근혜의 핵심 공세 중 하나다. 정부는 현대 자본을 지원하려고, 어떻게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파견 확대 저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 18일(수) 한상균 위원장 화성공장 방문

총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순회 중인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18일 기아차 화성공장을 방문한다. 조합원 동지들과 손을 잡고 4·24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한상균 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자!

- ★ 일정  
10:00 ~ 대의원 간담회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함께 참가합시다)  
이후 현장순회 및 퇴근장 선전전 등

#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투쟁으로 맞서자

정몽구는 지난해 주식배당금으로만 7백42억 원을 챙겼다. 10대 재벌 총수가 가져간 배당금만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정규직 “과보호”, 장기근속자 “고임금”을 비난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임금체계 개악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재직자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곳에서는 법적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 방침에 반대해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최근 현대·기아차 자본이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정부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

윤여철은 연초부터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속했던 3월 31일까지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의 해태를 지켜보며, 협상장에서만 요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법적 요건도 완벽하지 않잖아.

소송과 소모적인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사측은 더기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확대 요구도 무력화하려 할 수 있다.

## 성과연봉제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부터, 통상임금 확대를 위해 소송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투쟁을 돌아볼 때, 이런 주장은 옳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착착 공격을 쏟아가고 있는데, 이를 눈감고 일단 투 때 가서 싸우겠다고 해서는 우리의 임

금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핵심 타깃이 되곤 했다. 통상임금이 대표적 사례다.

이럴 때 잘 조직된 우리 노조가 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앞장서야 한다. 이런 투쟁은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아차지부와 5개 지회가 있을 곳은 협상장이 아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을 요구해야 한다

사측은 내년 8/8 시행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후퇴시키려 한다.

최근 사측은 8/8 시행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뺏기기 해, 9만7천5백60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일 반납과 노동시간 124.5시간 연장, 전공장 4.1% UPH UP, 화성 플라스틱과 차체 무빙라인, 소하 차체 무빙라인 외주화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8/9를 시행할 때 안전교육과 휴게시간, 아침조회 시간을 반납했고, 점심시간도 줄였고, 휴일

도 축소했다. UPH UP도 엄청 했다. 신입사원들에게는 임금 보전도 안 해줬다.

그런데 사측은 지금 8/8 도입을 위한다며, 또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이 분통 터뜨리는 이유다.

## UPH-UP

지금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등을 비롯해 여러 조직들이 설비 투자와 공장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노동강도 강화와 외주화, 휴일 반납 등 사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화성지회의 요구처럼 20만대 공장을 증설하려면, 최소 2~4년은 걸린다. 이는 내년 8/8 시행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발목이 잡히면, 노동강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측의 공격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도 온전한 8/8을 지킬 수 없다.

사측이 설비를 투자하든 공장을 증설하든 그건 사측의 문제다. 우리는

생산량 보전 압박에 발목 잡히지 말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주 48시간에서 44시간, 42시간,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생산량 보전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임금 삭감-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을 관철시켜야 한다.

## 조합원 교육을 사측에 위임해선 안 된다

지난 1월 9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압도 다수 대의원들은 노사 합동 교육에 반대했다. 그래서 “노사 합동 1박2일 교육은 중단하고, 지부-지회-교육위원 3주체가 모여 방향을 설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노동조합 교육을 사측과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였다.

그런데 지부는 최근 대의원들이 반대한 노사 공동 교육안을 다시 들이밀었다. 이에 교육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두 차례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들어, 화성지회가 노사 공동 교육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심히 유감이다.

1박2일 노사 합동교육은 단협상

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사측에 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통상임금-임금체계-8/8 등 여러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지금, 노사 공동 교육은 투쟁의 날을 무디게 하거나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무디게 할 수 있다.

화성지회는 당장 노사 공동 교육 시도를 중단하고,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노동자 정치 신문

###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